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일예배	자녀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2년 2월 6일 (제1135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책망도 가려서 하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잠9:8).

요즘 이 말씀이 진리임을 체감한다. 나는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 대부분은 나의 훈계나 교훈에 깨닫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던 어느 목사도 내 설교에 깨닫고 이실직고하며 회개했다. 그러나 간혹 내 말을 잔소리나 간섭으로 받는 자도 있다. 나는 그들에게 입을 다문다.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로 들으면 축복이 임할 텐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마7:6)고 하셨다. 누구나 보석을 좋아한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물들에게 그것은 그저 먹을 수조차 없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당장의 이득이 아니면 발로 차는 자는 개돼지나 뭐가 다를까.

마땅히 가르칠 자를 가르치는 것이 지혜다. 공자가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길가에 똥을 싸는 자를 발견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저놈을 잡아오라 하고는 “사람이면 금수와 달라야 한다. 길가에 똥을 싸는 너는 사람인가, 짐승인가?”라며 윤리를 가르쳤다. 그놈은 부끄러워 얼른 도망갔다. 다시 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길 한가운데 똥을 싸는 놈이 있었다. 그런데 공자는 제자들에게 “저놈을 피해 가자.”고 했다. 제자들은 “아니, 길가에 똥을 싸는 놈은 불러 야단도 치고 훈계도 하시더니만, 길 중앙에 똥을 싸는 놈은 피해가시다니요. 저놈을 불러다가 곤장이라도 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공자 왈, “길가에 똥을 싸는 자는 가르치면 똥 놈이지만, 저놈은 수위를 넘은 놈이라 훈계가 먹이지 않는단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잠23:12),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네 생명이니라”(잠4:13). 그리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도 말씀하신다.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잠15:32).

손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길 바란다.

너는 부정의 말을 뿌리째 뽑아버려라

목사님은 지난 수요일예배를 통하여 ‘성공한 자들은 언어가 다르다, 너는 부정의 말을 뿌리째 뽑아버려라’고 지난 주일에 이어 거듭 강조하셨다.

“제목만 들어도 이미 깨달았을 줄 압니다. 이스라엘 집회를 계획하는 스티브 김 장로가 수시로 국내로 들어오곤 하는데 그때마다 방역문제로 입국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마귀역사가 너무 많습니다!’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내가 그에게 바로 말해주었습니다. ‘이봐, 마귀 역사가 많다고 뿌리니 그

받아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죠. 이 말에 깨닫고 모 목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자신이 그런 말을 전한 사람이라고 죽을죄를 졌다며 용서를 구하더군요. 나는 그에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한 다윗의 용기라며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왜 부정의 말을 뿌리째 뽑아버려라고 연속으로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너무나 쉬운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기에 너무도 답답하고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

엘 백성들로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악평하는 10명의 말과 이에 동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요에 웃을 것이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곳이니 우리의 밭이라고 외쳤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이 들린 대로 복을 주사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 2세대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의 역사를 이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앓고 눕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잘못된 인식의 변화 없이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

봉우 이초석 목사

못한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렇지. 하나님의 역사가 많다고 뿌려야지. 왜 부정의 말을 뿌려!’ 그는 즉시 깨닫더군요. 또 모 권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나이가 드니 그런지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요~’ 하며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즉시 ‘권사님, 나는 늙었네, 아프네, 그렇게 뿌리니 아플 수밖에~’ 했더니 그 권사님 역시 깨닫더군요. 부정의 말은 지극히 작은 거라도 안 됩니다. 나는 부정을 말하는 자와는 상종조차 하기 싫습니다. 어느 지교회 목사에게 성전을 마련해주었는데, 처음에는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더니 며칠 사이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4층이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안 되겠어요’ 하는 겁니다. 나는 지난주일 단에서 대놓고 경고했습니다. 그 목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회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함으로

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이끄를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곧 내가 하는 말이 들린 대로 쏟아부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을 탐지하려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함께 보고 온 12명이었지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며 우리가 그곳에 들어갔다간 기골이 장대한 가나안 족속에게 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거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서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평한 10명을 재앙으로 죽이셨고, 그에 동조한 광야 1세대 이스라

우리의 생각과 행위를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시139:2~3)께서 우리가 입술로 뱉은 것이 들린 대로 되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항상 긍정의 말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너 참 잘생겼다’, 기대에 찬 심정으로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지어다!’ 하며 축복합니다. 돈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너무나 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죽겠다, 안 된다, 못하겠습니까? 글썽 성공자들은 언어부터 다르니까요? 이제 입에 칼을 물고 결단하세요. 부정의 말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2022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에 들린 대로 흔들어 놀려 넘치는 풍성한 복으로 갚아주시길 겁니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 및 수요일예배 대면예배 안내

접종완료자만으로 70% - 1체육관, 1차 및 비접종자는 30% - 2체육관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출20:1~6)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나라 명절에는 '조상을 잘 섬긴다,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차려놓고 절을 하는 풍습이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우리의 소관이 아닐뿐더러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절을 해서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박을 많이 하십니다. 하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럼 니 아버지가 귀신이나?"며 저를 내치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했던 조상이 귀신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의 떠도는 영혼을 보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빨리 예수를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정 때문에 죽은 조상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고전10:20~21). 실제로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지방이라는 것을 써서 제사상에 올려놓는데, 그 지방을 보면 '故 아무개 神位'라고 씁니다. '신위(神位)'는 '죽은 사람의 영이 의지하는 자리'라는 뜻으로, 신주(神主)를 모셔두는 자리를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조상을 단순히 죽은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이니 이게 하나님 앞에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부모 살아계실 때 효도(孝道)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계명인 것은 다 아시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섬기는 일을 싫어하십니다. 얼마나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상 앞에, 귀신들에게 절하는 자들에게는 당대가 아닌 삼사대를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 눈치 보느라, 상사 눈치 보느

라 귀신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고전10:22).

여러분, 신앙만은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외길입니다. 그 정해진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그것은 곧 신앙이 삼천포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삼십일 동안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금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그 명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 서

앞서 가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느브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을 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일 그렇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대쪽 같은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복하셨고, 주의 천사들을 급파하사 풀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자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고, 건강과 재물을 아울러 얻은 자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물목을 위하여 산당을 짓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

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진노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언약과 내게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왕상11:11). 우상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후대에 나라가 찢겨, 솔로몬의 군대장관이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열 지파를 규합하여 세운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이끌고 세운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안 믿는 자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기독교에 대해 '부모도 없고, 조상도 없는 종교'라고 비난합니다. 그

러나 그 건 오히려, 그들이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효

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곧 수직적 관계의 첫 계명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를 주셨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수평적 관계의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며, "그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엡6:1~3)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고하시기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출21:15),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출21:17), "아비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곧 찌개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30:17)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효도를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만 아버지 하나

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고(벧2:8),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기독교가 효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라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에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를 잘 차린들, 무덤을 잘 만든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자기만족 아닙니까?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더 잘 해드리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불편한 곳은 없나 챙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사후의 영(靈)이 귀신이다

효도 중에 효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했으므로 예수를 모르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저 만한 효자가 없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권사가 되신 후에 돌아가셨으니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자손 중에 주의 종이 많이 배출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족을 다 예수 믿게 하면, 훗날에는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할 일이 없어집니다. 지금 부모 눈치 보느라 제사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에 절을 하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가족을 구원한다면 그보다 큰 효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잘해드리세요. "우리 며느리가 믿는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우리 아들딸이 믿는 예수를 믿어봐야겠다."고 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잘 해드리셔서 가족에게 빛과 소금이 되세요. "저 집사라는 사람이 믿는 예수를 믿어봐라."라고 할 수 있도록 동네에서, 회사에서 모범이 되세요. 그러면 구원의 수가 날로 늘어가게 되고, 명절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먼저 택하신 이유는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눈치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당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이 모든 것에는 타협이 있지만,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어떠한 협박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타협하지 말고, 옳고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5:10~12).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기도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인천교회 중국선교부에 장파도라는 중국인이 있었다. 그는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의 주범 중에 한 명이어서 중국 정부에 쫓기다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전도를 통하여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교회에는 2005년쯤에 나왔다.

처음에 본 그의 인상은 굉장히 자기주장이 강하고, 세상에 대하여 반항적인 느낌을 받았다. 그런 그에게 중국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허인에 전도사를 비롯한 먼저된 믿음의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공을 들이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그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의 가장 큰 소원은 중국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그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했다. 그는 끊임없이 중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그가 작년 11월쯤에 불법체류자로 검거가 되어서 중국으로 추방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소식을 듣고 허 전도사와 중국선교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가 불법체류자로 추방되면 그의 신변이 중국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는 중국인 신분이 아니기에 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를 석방시켰다. 그는 이 어려움을 가운데에서도 조국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 기도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긴 후 두 달이 안 된 작년 12월 말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올해 1월 그는 첫 주에 중국으

로 들어갔다. 중국으로 가기 전에 함께 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가길 원해서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해주었다. 그에게 나는 “왜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중국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당신 같은 성격에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었겠느냐?”라고 하니 옳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이제 그토록 소원하던 고국에 들어가니 부모, 형제,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선물을 꼭 하라고 말해주었고, 그도 5년 안에 자리가 잡히는 대로 우리를 중국에 초청할 테니 예배를 꼭 드려달라고 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30여 년 갈 수 없었던 불가능했던 귀국 길을 그가 눈물로 기도하여 결국 응답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명하지 않았는가.

믿음은 허상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일이다(히11:1). 시련, 고난은 누구든지 온다. 그 시련과 고난이 길어지면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잠24:16). 믿음의 사람은 푸른 초장 설만한 물가에서만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기도하면 얼마든지 여유를 가질 수 있다(시23:1~4). 기도는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꿈도, 희망도, 주님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

장영국 목사

:: To Be Succeeded ::

기도의 루틴(routine)

오래전 어느 날 꿈에서였다. 누군가와 부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순간 공중에 있던 악한 영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가 보혈의 찬송을 부르자 다시 물러가는 생생한 꿈이었다. 부정적인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자리에 동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꿈이었다.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원망, 불평하거나 다른 이를 탓하는 말을 쏟아내는 우를 범할 때가 있다. 세상은 그것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벧전3:10~12). 더 나아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1:15~16)라고 말씀하신다. 죄성을 가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생각과 행실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단연 기도다. 빠르고 바쁜 이 세대를 살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기도의 루틴’(routine)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과 늦은 밤에 따로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한 시간, 즉 습관이 있어야 한

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이 기도의 습관으로 공생애 사역뿐 아니라 전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지실 능력을 얻으셨고, 기도의 사람 다니엘 역시 바벨론 대제국의 국무총리로서 매우 바쁜 일과에도 하루 세 번 기도를 쉬지 않았기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정결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앉은뱅이를 일으켰다는 성경의 기록을 볼 때(행3:1~10),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반드시 정해진 기도의 습관이 있었고 그들은 모두 끝까지 승리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우리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진보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 크고 작은 발걸음들을 내딛고 있다. 이 모든 수고와 발걸음이 반석 위의 집과 같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과 입술을 지켜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기도의 루틴을 잃지 말고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마음과 입술이 된다면 생각하는 것마다, 입술로 뿌리는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 믿는다.

이국진 사모
joyful_jina@hanmail.net

:: 용달샘 ::

소신껏 살자!

아버지는 나귀를 타고 아들은 걸어서 마을을 지나갔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 아들을 걸릴 수가 있어?” 하고 수군거렸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귀에서 내리고 아들을 나귀에 태웠다. 그런데 이번에는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아버지를 태워야지.”라며 사람들이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나귀를 타고 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리 말 못 하는 짐승이라지만 어떻게 둘 씩이나 타고 가냐?”며 쑥덕거렸다. 이래도 저래도 사람들이 수군거리자 아버지와 아들은 고민을 하다가 나귀를 메고 가기로 했다. ‘설마 이번에도 뭐라 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사람들이 여전히 손가락질까지 하며 놀리는 거 아닌가? “나귀는 타고 가라는 거지, 메고 가라는 게 아닌데 어리석기는 쫓쫓쫓...” “남이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을 늘하는 사람은 이미 남의 시선의 노예일

뿐이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이 명령대로 해야 한다. 자기가 싫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불행하다.”

이는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의 저서 ‘인생론’에서 말한 내용이다.

그렇다. 사람들 말에 충추면 아무것도 못한다. 각자 자기 주관과 감정,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하는데,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왕좌왕, 뒤죽박죽이 된다. 소신(所信)이 있어야 한다. 남들이 뭐라든 내 소신껏 행동하는 담대함이 필요하다. 왜? 내 인생의 주권자는 나니까.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람의 눈치를 본 적도 없으며, 사람의 비위를 맞춘 적이 없다고 하셨다. 소신대로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오셨기에 오늘이 있다고 하신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하신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 소망의 언덕 ::

목자의 의무

얼마 전 ‘Eedga’s mission’이라는 동물보호 자선단체에서 구조한 양의 영상이 화제가 되었다.

구조된 양은 무려 35kg에 달하는 양털에 짓눌린 채 숲에서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구조단체에 의해 구조되었다. ‘바락’이라는 이 양은 곧 바로 보호소로 이동이 됐는데 털의 무게 때문에 거의 걷지 못했고, 눈을 가린 털 때문에 앞도 전혀 볼 수 없었다.

보호소 직원들은 서둘러 바락의 털을 깎아주었는데, 그 안에서는 썩은 쓰레기, 벌레, 나뭇가지들이 넘쳐났다. 보통 양은 1년에 한 번 털을 깎지 못하면 뭉쳐진 털 때문에 배변을 못해 죽는 경우도 있다던데, 바락은 그 털 길이로 보아 무려 5년 정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한 시간에 걸쳐 35kg의 양털을 벗어낸 바락의 모습은 탄환이었다. 더럽고 게을러 보이며 사나워 보이기까지 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깨끗하고 온순한 양 본연의 모습이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이 깊었다. 첫 번째로 주인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다. 주인을 잃어버린 양이 어떻게 되는가?

양털에 온갖 오물이 엉켜서 점차 움푹달작 못하다가 결국 영양실조에 걸리고, 그러다 죽게 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가 없으면 우리가 그 꼴이 아니겠나. 그러니 선한 목사이신 예수님 그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두 번째로 목동으로서 내게 맡겨주신 양들을 잘 살피고 있는가였다. “왜 대면예배에 나오지 않는 거야?”라며 그들을 나무랐지만, 어쩌면 그들이 현장에 나와서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양 떼를 부지런히 살피지 않은 나의 악함과 게으름 때문이 아닐까! 목사님의 찌렁찌렁한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 마음을 두라.”

문제의 학생은 없고 문제의 교사가 있을 뿐이다. 문제의 양은 없고, 제 일을 다 하지 못하는 샅꾼 목자가 문제다.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목사님처럼, 나도 선한 목동이 되어보길 다짐하고 기도한다.

‘내 양을 바락처럼 만들지 않으리라!’

이현승 목사
coollee0817@naver.com

:: 부르심의 소망 ::

:: 빛이 되리라 ::

착한 사람들

오수관이 막혔습니다. 원인은 기름과 물티슈였습니다. 반상회를 열어서, 입주민들에게 싱크대와 번기에 기름과 물티슈를 버리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어서 입주자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구조를 알고 있어서 이번은 뚫어줬지만 다음부터는 동별로 비용을 부담해서 전문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얼마 전 다른 동의 오수관이 막혀서 뚫고 있었는데, 그 동대표가 나를 힐끗 보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이제 더이상 그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입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4년여간 그는 입주자 대표라는 책임감으로 온갖 꾀은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어떤 보수나 혜택도 없습니다. 특히 막힌 오수관을 뚫는 일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님에도 수차례 그 일을 해왔습니다. 더럽고 악취 나는 그 곳에서 대표님이 느낀 모멸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저희 동 오수관이 또 막혔습니다. 또 뚫물 속에서 기름과 다량의 물티슈를 건져 올렸습니다. 반상회 때 그렇게 말했건만 누군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버렸고, 다음부터는 전문업체를 불러서 처리하라던 대표님이 그 밤, 그 추운 날씨에 또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상회 이후 오수관이 막혔다는 얘기를 들은 대표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의 양심과 이성은 얼마나 많

은 고민을 했을까요. 번뇌하는 그 마음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오수관이 막혔다는 얘기를 듣고 해결하려 나올 때까지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6)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여전히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도 저의 시선이 행악자들에게 더 집중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을 텐데 정작 그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그들의 착한 일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잠시 마음이 따뜻해질 뿐 금방 잊혀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불편함을 얘기하는 방법은 발을 구르거나 물건을 벽에 던지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이 지요. 찢찢때고 있을 부모를 생각하며 층간소음을 가만히 참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뒤차의 차주가 앞차로 가서 심하게 썰며 두서없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구요. 앞차의 차주였던 중년 여성은 곧 그 여인을 여러 차례 안아주고 다독였습니다. 아이 엄마는 생각지 못한 위로에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자신이 이전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과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며 비슷한 환경에 빠진 상대를 너그러이 품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한 빌라 경비원이 암에 걸려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암 3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로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입주민들은 “얼른 쾌차하세요. 아저씨가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빌라 주변을 쓸고 닦고 수리하며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경비원은 용기를 내어 치료를 시작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보수를 받는 일이라고 당연히 여기지 않고, 그동안의 수고를 기억하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착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6:9). **박영신**

꿈을 시각화하자!

3년 전에 퇴사를 했다. 그리고 꿈이 하나 생겼다. 바로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하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점에 가서 내 책이 출간되었다고 생각하고 베스트셀러 책들 앞에서 내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출력해서 책상 앞에 붙이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바꿨다. 눈에 보일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년 후 지금, 나는 작가가 되었다.

얼마 전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손자가 서울대학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일화가 소개되었다. 4년 후 꿈을 이뤄낼 거라는 그 손자의 용기 있는 포부에 목사님도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함께 도전을 받았다.

바로 그렇다. 시작은 먼저 내 꿈을 시각화, 이미지화하는 것이다. 우리 뇌는 단지 명확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성취하려는 쪽으로 스스로 움직인다. 자주 보면 볼수록 단기기억에서 장기기억으로 옮겨오고 문제 앞에서 차츰 해결의 방법을 찾아낸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올해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것을 시각화하자.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고 보일 때마다 늘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 애쓰자.

‘꿈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오. 우리가 꿈을 버린 것이지요.’, ‘희망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오. 우리가 희망을 버린 것이지요.’, ‘믿음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오. 우리가 믿음을 버린 것이지요.’ 예배 때 늘 부르는 이 찬양 가사처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이뤄주시리라 확신한다.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장명훈 집사

비익조

비익조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만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전설의 새입니다. 그래서 비익조는 제대로 볼 수도, 날 수도 없습니다.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아니하면 날지 못한다는 상상의 새로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살

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익조는 ‘사랑’이니 ‘인연’을 이야기할 때 비유되기도 합니다.

이 비익조는 당나라 시인 백락천이 현종과 양귀비의 애절한 사랑을 노래한 장한가(長恨歌)에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익조(比翼鳥)는 서로 도울 비(比), 날개 익(翼)자로 된 한자어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날 수도, 볼 수도 없는 새입니다. 부부관계는 물론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목소리도 늙을까?

목소리는 사람의 인상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으며 목소리를 관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성의 경우 생리기간이나 임신 중에는 목소리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에어컨리너 등으로 먼지나 연기 등 유해 물질을 최소화하며 주변 환경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한다.

말을 많이 해야 하거나 노래하기 전에는 워밍업이 필요하다. 작은 목소리, 소폭의 음조 변화로부터 큰 목소리, 큰 폭의 음조 변화까지 5~10분에 걸쳐 서서히 음의 강도와 높낮이를 변화시킨다. 이 과정이 끝나면 역순으로 다시 시행한다. 우리는 얼굴이 늙었다는 얘기는 자주 하지만 목소

리가 늙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잘 관찰해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분명히 젊은 사람의 목소리와 다르다. 나이가 들면 신체조직의 양이 줄고 탄력이 없어지면서 주름살이 생긴다. 남자의 경우 얼굴처럼 성대 내부를 채우고 있는 결체조직이 점점 줄어들면서 변성을 일으킨다. 성대 근육이 약해지면서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쉼 듯한 목소리가 난다. 여자의 경우는 남자만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면서 성대가 두터워져 점점 목소리가 굵어진다. 따라서 피부도 노화를 막기 위해 관리하는 것처럼 목소리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성대 운동의 간단한 방법은 숨을 크게 마신 상태에서 혀를 약간 위로 구부리고

“흐르르르”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세게 분다. 그다음 “으”라는 목소리를 섞어서 같은 방법으로 바람을 세게 불면 “르르르르”라는 소리가 나면서 혀가 떨린다. 이것을 하루에 5분씩 매일 반복하면 목소리도 어느 정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혀 트릴’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성대의 진동을 강하게 만들어 성대가 약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성대가 늙어가는 것을 예방한다. 혀 트릴은 남자에게 더 효과적이며, 여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물론 규칙적으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다른 신체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몸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목소리도 젊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Dr. 조희경 집사

